

우주

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도 국내 상륙

우주 정의훈_02)368-6170_uihoon0607@eugenefn.com

스타링크·원웹에 이어 아마존의 카이퍼도 국내 상륙

아마존은 지난해 5 월 서울 강남에 유한책임회사 '아마존카이퍼코리아'를 설립했다. 아마존이 한국 지역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주요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페이스 X 의 스타링크, 유텔셋의 원웹, 아마존의 카이퍼 모두가 국내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.

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과기부는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해 '주파수 이용 조건'을 마련하는데,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주파수 혼신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. 여기엔 국내 위성 보호, 타 사업자와의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,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된다.

2023 년 3 월, 스페이스 X 는 국내에 '스타링크코리아(Starlink Korea LLC)'를 설립하고 과기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받았다. 또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도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이르면 2 분기 중으로 승인이 날 경우 국내 최초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시작된다. 원웹은 현재 한화, KT 와 제휴를 맺고 국내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, 국방부의 '상용 저궤도위성기반 통신 체계' 사업에도 민간 기업으로 한화시스템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. 아마존은 아직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진 않았다. 이달 28 일 27 기의 첫 위성 발사를 앞둔 만큼 국내 서비스 승인도 서두르진 않을 전망이다.

대규모 예산 삭감 위기에 놓인 NASA

미국 예산관리국(OMB)이 NASA 에 보낸 백악관의 예산안 초안(passback)에 따르면 2026 년 NASA 의 예산은 약 200 억 달러로 전년(약 250 억 달러) 대비 약 20% 삭감됐다. 이번 초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2026 년 미국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NASA 예산 비중은 약 0.28%로, NASA 가 처음 설립된 이래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하게 된다.

따라서 NASA 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의 수행에 차질을 빚게

한주 간 주요 뉴스

로켓랩, 라이드세어 경쟁에도 불구하고 일렉트론 수요 증가

블루 오리진, 여성 비행사만 탑승한 뉴 셰퍼드 우주 비행 발사

미 의회 의원들, NASA 과학 예산 삭감안 비판

AT&T, AST SpaceMobile 과 FirstNet 간 연결 시험 예정

Hughes, OneWeb 네트워크용 새로운 단일 패널 안테나 출시

미 우주군, 잠재적 관세 문제를 대비해 공급망 점검

되었는데, 특히 우주과학 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50% 가까이 축소돼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천체물리학과 행성과학은 약 67%, 지구과학과 태양물리학 분야는 약 50%의 예산 삭감이 단행됐다. 이로 인해 2026년 발사 예정인 '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'의 개발도 불투명해졌다.

물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돼 의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 규모는 줄어들 수 있으나, 분명한 건 삭감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.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예산 효율화 정책 기조로 인해 수혜가 예상됐던 미국의 우주산업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.

도표 1. 아마존의 '프로젝트 카이퍼'



자료: Amazon, 유진투자증권

도표 2. 카이퍼 프로젝트 프로토타입 위성 2기



자료: Amazon, 유진투자증권

도표 3. 27의 위성이 탑재될 페이로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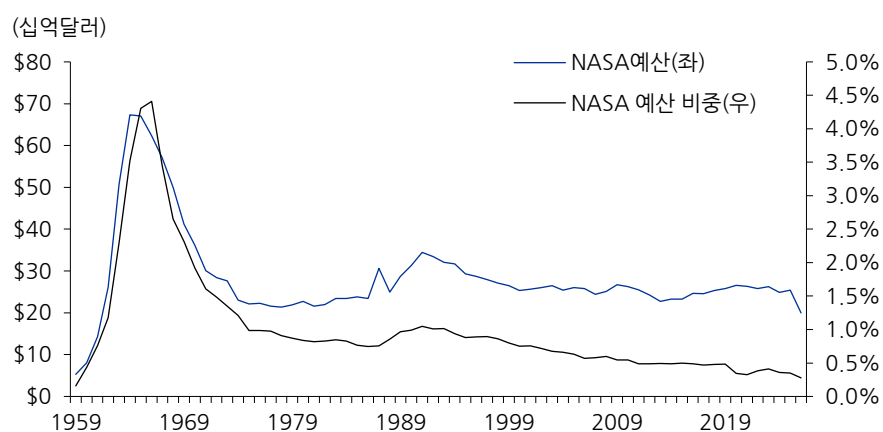
자료: Amazon, 유진투자증권

도표 4. ULA의 Vulcan



자료: ULA, 유진투자증권

도표 5. NASA 예산 및 비중 추이



자료: NASA, 유진투자증권

주: 과거 NASA 예산은 현재 통화 가치로 변환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6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4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5.03.31 기준)